

# 광주 온 외국인들 “남도문화체험 가장 선호”

## ■U대회 팸투어 참가 54개국 717명 만족도 조사

10명 중 9명이 만족... 체험 프로그램 추가 확충 필요

49% “재방문 희망”... 영어해설 표지판 부족 아쉬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직접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U대회 선수단 팸투어’ 참가자들이 참가 동기로 ‘한국 문화 체험’을 가장 많이 꼽았고,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선수단 팸투어 기간(7월 1~15일) 전체 참가자 85개국 3172명 가운데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54개국 717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참가목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6명 중 222명(37.2%)이 ‘한국문화체험’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연관광’이 105명(17.6%), ‘여가 시간 활용’ 75명(12.6%), ‘호기심’ 57명(9.7%), ‘기타’ 136명(22.8%) 등의 순이었다. 기존 자연자원 위주의 보는 관광에서 문화와 역사체험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는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U대회 기간 광주 도심 역사·문화·예술관광과 인접 5개 시·군의 자연경관, 전북 전주의 전통문화 관광을 연계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U대회 선수단 팸투어 전반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가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팸투어 전체 만족도는 응답자 677명 중 5점 만점 기준 ▲5점 447명(66.0%) ▲4점 202명(29.8%) ▲3점 26명(3.8%) ▲2점 2명(0.3%) 순으로 전체 참가자의 95.8%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만족도

는 전체 응답자 717명 중 ▲5점 462명(64.4%) ▲4점 184명(25.7%) ▲3점 23명(3.2%) ▲2점 18명(2.5%) 순으로 참가자 90.1%가 ‘만족’했으며, 가이드 및 통역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광주시에 대한 도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선 전체 응답자 711명 중 ▲5점 448명(63.0%) ▲4점 192명(27.0%) ▲3점 24명(3.4%) ▲2점 12명(1.7%) ▲1점 35명(4.9%)으로 응답자 90%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재방문 의향 질문에는 응답자 349명(49%)이 ‘재방문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 시민들의 친절과 평화로운 도시, 전통문화체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박물관과 주요 관광지 등에서 영어해설 표지판이 부족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김인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마케팅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에 대비해 관광객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나눔 화·목 카페’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나눔 커피는 화·목 카페’ 행사에 참여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 레몬청·커피 및 레몬에이드 등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북구청 직원들이 주최한 화·목 카페는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과기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전력

450억 국비 지원·120여명 인력 창출 등 산업발전 기대

진곡산단 후보지 내정 등 차별화된 제안서 마련 안간힘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설립하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과기원은 지난 21일 북구 오룡동 광주과기원에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및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국회 국방위 소속 권은희 의원, 광주시의회 문태환 부의장, 김민중 산업건설위원장, 광주과기원 문승현 총장, 광산구 운기봉 부구청장, 광주테크노파크 배정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유치에 필수적인 부지 확보와 우수인재 양성·채용,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민·관·산·학 기관이 유기

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센터 부지선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제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후보지로 진곡산단 내 적정규모(2만6,771㎡) 이상의 후보지를 내정했다.

광주시는 내정 부지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추가 부지를 확보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우병기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3년 유치한 국방특화연구센터와 광주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광주지역 부품소재

강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의 물꼬가 터졌다”며 “이번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로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력을 방위산업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은희 의원도 “이달 말 공모서류 제출 마감까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안서를 만들어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유도무기 등 각종 국방장비와 군수물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시험·평가하는 기관으로 부지매입과 건축·장비구입 등 4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 유치로 120여명의 방산전문 인력 창출이 기대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전이 뜨겁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지하철, 여름방학 ‘체험학습장’으로

문화전당역 등 테마역 10곳 선정 내달 말까지 ‘스텝 투어’

광주지하철이 여름방학을 맞아 즐거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펼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지하철 스텝 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승객이 스텝투어 맵에 표기된 미션 역을 직접 방문, 각 역의 고객안내센터에서 확인 스텝투어 맵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10개 코스를 완주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인권·민주 체험 코스와 호남문화 체험 코스를 적절하게 묶은 5개역 A, B 코스로 나누어 고객의 선택에 따라 테마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텝투어 지정역은 문화전당역(5·18기념홍보관), 광주송정역(국창인방울선생전시관)등 테마역 10곳으로, 1개 코스 스텝투어 모은 완주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교통카드를 선물한다.

공사는 지난 6월말 새롭게 문을 연 ‘광주도시철도 어린이 홍보관’과 함께 방학맞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스텝 투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찾아 다양한 체험 거리를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시각장애인 시설 영광원에 생필품 전달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2일 서구 유덕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시설인 영광원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도시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했으며, 내부 시설물 보수를 비롯한 단지 내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또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시각 장애체험을 하기도 했다.

영광원은 시각 장애인의 사회심리 재활 서비스, 생활재활 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북구, 무등산장·중외공원 등 집중 방역소독 실시

광주시 북구청은 23일 “오는 8월말까지 무등산장·원효사 시설지구·풍암정·청풍침터·광주호 호수생태공원·중외공원 등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소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기승을 부리는 숲 모기 증을 막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청은 특히 광주 U대회 팸투어 코스로 유명해진 환벽당·풍암정·무등산·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 북구 8경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경 주변 방역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방역에는 성충방제에 효과적인 가열 연막법과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한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펜션 · 찻집 · 식당

### 전원주택지, 요양(병)원, 연수원 등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현 감정가 - 28억
- 매매 - 22억원(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 현재, 빅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7층중 7층 전체, 약 120평
- 현, 감정/시세 7억
- 대출 3억 6000만원 안고
- 매매 5억 5천만원
- 보 1억에 월 330만원 임대가능
- 60평씩 분할임대 가능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점문점/호프/PC방
-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주인직매 H. 010-3605-5000